한중 지방정부 교류 협력 방안 모색

군산시, 중국 실크로드 국제물류박람회 방문

군산시는 한때 침체기에 있다가 최근 들어 경제, 문화, 예술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에서 개최된 제6회 중국(롄윈강) 실크로드 국제물류박람회에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하게 됐다.

중국의 '新 실크로드 전략구상-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 따른 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 거점도시이자 군산시 對중국교류 13개 항로 중 칭다오(靑島), 베이하이(北海), 선양(瀋陽), 군산, 옌타이(煙臺)에 이은 5번째 기항지인 롄윈강시는 군산시와 지난 2011년 5월 국제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한 이래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본격적인 새만금시대를 맞이한 환황해권 물류관문인 군산항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연계한 한중 양국의 물류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군산대학교 강태원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롄윈강, 웨이하이(威海), 칭위안(淸遠)시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11개 도시대표 우수사례 발표 후 좌담회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는 그간 중국 내 13개 지방도시와 '군산'으로 하나 되어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별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등 시가 보유한 對중국 인프라를 통해 양자 교류회로써 입지를 다져온데 그치지 않고 우호교류의 대상을 '양자(兩者)'에서 '다자(多者)'로 확대해 군산을 중심으로 한-중, 중-중 도시 간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에 롄윈강시에서 개최한 '제6회 중국(롄윈강) 실크로드 국제물류박람회'에 관내기업인 향토박대사업단과 옹고집 등이 우리시의 우수한 수산품을 알리기 위해 참여중이다. 이에 군산시는 멀리 중국까지 찾아와 對중국시장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기업의 부스를 찾아 격려했다.

현재 군산시는 중국 내 6개성(省)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도시와 국제우호관계를 맺고 전 방위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실질적·적극적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시에 중국대표처를 설립하고 중국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도시들과 긴밀한 협조노선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산학협력단, 해원바이오테크와 산학협력

항아토피성 약재추출물 및 제조방법 기술 협력키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윤철)과 ㈜해원바이오테크(대표이사 전요섭)가 '항아토피성을 갖는 약재추출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전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김윤철 산학협력단장과 전요섭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민철 한의과대학 교수, 강연석 한의학과장, 투자회사 ㈜피버트유에스엠 박성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기술이전에 따른 상호협력을 통해 기관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해원바이오테크에 기술을 이전한 박민철 교수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 중 'ICT 융합 기반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적 관리 기술 개발' 연구 부분에 선정돼 연간 5억 원씩 총 25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적 연구에 관한 사업 수행을 통해 이번 기술이전 특허를 출원했다.

박민철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 진단 및 치료 패키지 검증, 개인별 맞춤형 치료 관리 프로그램 개발, 한·양방 병용치료 DATA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이전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치료 기술 개발 연구 및 아토피센터를 통해 난치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객관적 진단에 따른 맞춤형 전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 치료기술 개발 및 근거중심의학 기반을 조성하고, 아토피질환 관리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철 교수 연구팀은 유소아뿐만 아니라 성인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토피의 병인을 소화기와 호흡기 민감성, 정서적 문제로 분류하고, 임상적 연구, 문헌적 연구, 실험실적 연구 등을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장내 미생물-대사-면역 특성분석 임상연구에 관한 임상시험과 소화기와 호흡기의 민감성에 근거를 두고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환경 현안문제 해결 역량 결집"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익산시는 9일 신재생자원센터에서 국·소·단·장,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개의 핵심 현안과제를 가지고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환경 현안문제를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에 이어 악천후 속에서도 시설을 견학하고 해동환경을 방문하며 환경문제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주재한 정헌율 시장은 "공직자 개개인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심각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은 반성과 성찰로 우리시 환경정책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친절 및 적극행정, 추석연휴 민생안정 종합대책,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사 건립사업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부서별 보고 후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연휴기간 의료기관 진료공백 최소화 노력

병의원 및 약국 지정 운영

군산시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을 포함해, 병·의원 100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120개소, 보건기관 28개소가 신청한 일자별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472-5129)과 동군산병원(440-0516)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시 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상황실(463-4000)을 설치 운영해 시민들이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선 안내를 하고 시청 및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진료일시를 게시하여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연휴 진료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외에도 129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에서도 진료 등 응급의료정보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홈페이지(www-e-gen.o.kr)와 스마트폰 이용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추석 명절 동안 시민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의원 및 약국의 사정에 의해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운영 여부를 유선확인 후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군산시는 최근 들어 대내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군산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국제여객선 증편 운항 따라 인센티브 관광상품 개발

군산시는 최근 들어 대내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북경 중화민족국제문화추진중심(국가문화담당 최고기관), 중위국제여행사(중국 관광청 승인업체), (유)서해퍼피스(백제면세점 운영업체, 익산시 소재), 전라북도 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국과 군산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주 6회 증편 운항함에 따라 600만명 중국 관광객 시대를 맞아 체류형 관광객 유치방안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중위국제여행사 및 의료관광 관계자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방한하는 일정에 맞춰 체결됐다.

협약 참여기관인 서해퍼피스는 중국여행사와 함께 사업기획 및 계획을 수립과 홍보관리를, 중위국제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모집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전라북도 관광협회는 중국인 인센티브 관광상품을 개발·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는 대략 1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2020년에는 10만명의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협력사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 제공과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 음식 및 숙박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방문 등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관내 관광지 방문을 위한 볼거리·체험거리 확대 등 관광자원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소라산~영등소라성당 간 도로 확장 개통

익산시는 남성중·고와 영등소라성당 간 450m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인도를 개설 확장하고 도로폭을 8m에서 10m로 확장 개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구간은 서부지역에서 영등동으로 이동하는 우회도로로 그동안 성모병원 사거리의 교통정체를 피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사고의 위험 컸다.

인근 4개교 2500여명 학생들의 주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통행제한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